

## EADC (East Asian Area Dam Conference), 동아시아담기술교류회의의 태동과 현재, 그리고 미래



고덕구  
K-water연구원장 / 한국대담회 전무이사

발계획 (1992~2001)'에 반영되었다. 정부는 1991년에서 1997년까지 현장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97년 9월 건설예정지를 공시하였으나 당시 그 세력이 급팽창한 환경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 주민이 합세하여 댐건설을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댐건설의 찬반을 놓고 정부부처, 지역주민, 자치단체, 환경 단체 등 이해당사자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었으며, 여기에 '그린피스', '시에라클럽' 등 국제환경단체들도 댐건설 반대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하는 등 영월댐 문제는 국제적인 환경이슈로까지 부각되었다. 결국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혁기획단은 영월댐건설타당성 조사팀을 구성하여 물수급, 홍수관리, 댐안정성, 환경보호, 문화유적보호 문제 등 다섯 개의 분과로 나누어 연구를 추진한 결과 댐 건설보다는 보전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댐 건설을 백지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은 국내의 사회적 분위기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이라는 새로운 기류가 팽배하여, 2000년말 '세계담위원회(World Dam Commission, WDC)'가 '댐과 발전(Dams and Development)'라는 보고서를 발행하고, '세계은행(World Bank, WB)'가 세계적으로 신규댐 건

설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자 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댐에 대한 반대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댐 사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국대담회(Korea National Committee on Large Dams, 이후 KNCOLD)'는 '한국수자원공사(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KOWACO, 현재 CI는 K-water)'와 함께 국제협력을 확대하여 세계적인 댐 관련 동향에 발맞추어 나가고, 댐 관련 선진 기술의 도입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댐 사업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제대담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Large Dams, 이후 ICOLD)' 연차회의의 국내 유치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동아시아 담기술교류회의(East Asia Area Dam Conference, 이후 EADC)' 탄생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EADC의 태동배경에 있었던 각종 활동을 정리하고 저자의 당시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포함하였으며, 2004년 제1회 EADC 연차회의의 후 진행되어 온 과정, 그 과정에서 도출되었던 문제점과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EADC태동 배경

#### 가. ICOLD 연차회의의 유치

2000년 KNCOLD는 2002년으로 예정된 '제70차 ICOLD 연차회의(Annual Conference)'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하여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회장 최중근),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68차 ICOLD 연차회의'에서 브라질의 이과수와 경합하였으나, 사전 준비와 국제적 네트워크의 부족으로 유치가 실패하였다. 2003년으로 예정된 '제71차 ICOLD 연차회의'는 '제21차 ICOLD 총회(Congress)'와 병행하여 캐나다의 몬트리올로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KNCOLD는 2004년 '제72차 ICOLD 연차회의'를 국내에 유치하기로 결정하고 지속적인 유치 노력을 시작하였다. 각종 홍보 자료를 제작하고 관련 국제 행사에 참가하여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KNCOLD는 2001년 9월 9일부터 15일까지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개최된 '제69차 ICOLD 연차회의'에서 일본 및 독일 대표단과의 친분을 쌓는 한편 특히 한·일 양국 대담회장은 정기 기술교류에 합의를 하여 EADC의 모태가 되는 '한일 대담회 기술교류회'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또한 KNCOLD는 2002년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샌디에고에서 개최된 '미국대담회(United States Society of Dams, 이후 USSD) 연차회의'에 참가하여 KNCOLD전시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활동을 하였다(회장 고석구). 뿐만 아니라 당시 ICOLD 총재 Mr. C.V.J. Varma, 부총재 Dr. L. Berga, USSD 회

### 1. 서론

1999년 8월 김대중 대통령은 사건을 전제로 동강댐 건설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고, 2000년 6월 5일 공식 사업명 '영월다목적댐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댐이 건설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상징적인 계기가 되었다.

영월다목적댐 건설 논의의 시발점은 1990년 한강유역에 내린 대홍수라 할 수 있다. 서강과 동강이 만나 남한강이 되는 영월지역에서는 과거에도 잦은 수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1990년 9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내린 393mm의 집중호우로 31명의 인명피해와 1,485억원의 재산피해를 입고 지역 주민들이 댐 건설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영월다목적댐 건설계획이 제3차 '국토종합개



사진 1. 제1차 한·일 대담회 기술교류회 진행 모습



사진 2. 제1차 한·일 대담회 기술교류회후 양국 대담회장간 악수  
(좌: Amino JCOLD회장, 우: 고석구 KNCOLD회장)

장 Mr. W.B. Bingham, USSD 전회장 R.W. Kramer, H.L. Blohm, A.H. Walz, 그리고 일본, 중국, 인도 등 각국 대담회 회장 및 대표단과의

교류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들은 만장일치로 한국의 '제72차 ICOLD 연차회의' 서울 유치를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여기에 미국의 Mr. Arther H. Walz와 일본의 Dr. Tadahiko Sakamoto는 한국에 대해 남달리 큰 호감을 가진 이들로, 2001년 '제71차 ICOLD 연차회의' 시부터 친분을 쌓기 시작하여 2001년 하반기 KNCOLD가 주최한 '2001년 댐기술 심포지엄'에도 참석하여 여러 가지 협조와 조언을 해주기도 하였다.

당시 Mr. Walz는 미육군공병단을 대령으로 예편한 Geotech 전문가로 USSD 회장을 역임한 개인 컨설턴트로서 그 이후에도 한국과는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Dr. Sakamoto역시 한때 한국에 파견 근무를 한 바 있어 한국의 소주와 '돌아와요 부산항에' 같은 한국 유행가를 좋아하고, 한국말도 곧 잘하는 이로서 당시 일본 '토목연구소(Public Works Research Center, PWRI)'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었다.

'제72차 ICOLD 연차회의' 대한민국 서울 유치가 확정된 것은 2002년 9월 27일 브라질 이과수 연차회의 집행위원회에서 였다 (회장 고석구). KNCOLD가 단독으로 유치의향서를 제출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간 쌓아 온 홍보 노력과 네트워크에 의한 쾌거였으며, 당시로서 ICOLD 연차회의와 같은 국제 행사는 우리나라에서도 드문 큰 행사였다.

#### 나. 한·일 대담회 기술교류회

2001년 봄 90년내 가장 극심한 가뭄을 겪은 후 정부에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통해 12개의 신규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2000년말 발

표된 WDC의 'Dams and Development' 보고서와 미국의 일부 댐 해체 등을 바탕으로 환경론자들과 일부 지역 주민의 댐 건설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었다.

KNCOLD는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ICOLD 연차회의의 국내 유치를 위한 활동으로 2001년 9월 9일부터 15일까지 독일 드레스덴에서 개최된 '제69차 ICOLD 연차회의'에 대폭 강화된 대표단(회장 고석구)을 파견하였으며, 여기서 한·일 양국 대담회장간 기술교류에 합의하였다.

또한 2004년 '제72차 ICOLD 연차회의' 한국유치를 위해 '일본대담회(Japan Commission on Large Dams, 이후 JCOLD)'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바, '2001년 한국대담회 댐기술심포지엄'과 함께 '제1차 한·일 대담회 기술교류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회장 고석구). 여기에 국제협력활동 강화를 위해 일본 이외에 미국, 스페인의 댐 전문가들을 초청하였다.

사진 1은 양국 대담회간 협약을 진행하는 장면이고, 사진 2는 협약 체결 후 양국대담회장이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다. 행사의 개요는 표 1과 같다.

'제2차 일·한 대담회 기술교류회'는 2002년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의 동경 미나토구 Toranomom Pastoral에서 국제심포지엄과 함께 개최되었다. 한·일 대담회간 지속적 교류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공동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환경친화적 댐건설·관리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일본대담회는 공동 국제심포지엄에 미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

표1. '제1차 한·일 대담회 기술교류회' 및 '2001년 댐기술심포지엄' 행사 개요

1. 한일 대담회 기술교류회 개최

- 기 간 : 2001. 10. 30(화)~10. 31(수) (2일간)
- 장 소 : 서울
- 참석자 : - 한국측 : 한국대담회 회장단 / 수공 댐본부장 · 처장단  
- 일본측 : Amino 일본대담회 회장 등 5인 (Sakamoto, Irie, Harada, Sayama)
- 행사일정 :

일자	시간	행사	내용
10.30	15:00~17:30	기술교류회 1차 회의	- 실무회의 - 한·일대담회 현황 소개 - 기술협력 합의서 체결에 관한 토의
	18:00~20:00	환영만찬	
10.31	10:00~12:00	기술교류회 2차 회의	- 주제토론 - 기술협력합의서 체결

- 개최결과  
- 양국 대담회 및 댐 관련 사업에 대한 소개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 한일 대담회 기술협력에 관한 합의서 체결  
- 댐 건설·관리에 관한 신기술·정보 교환 (분과위원회 활동 강화 등)  
- 국제대담회 활동에서의 상호협력 합의 등 (2004년 국제대담회 한국유치)

2. 2001 댐기술 국제심포지엄 개최

- 일 시 : 2001. 10. 31, 13:30~19:30
- 장 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회의장
- 참석인원 : 약 250여명
- 주 제 : 댐 사업 국제동향과 우리의 선택
- 세부일정 :

시간	내용	담당자	비고
13:30~14:00	댐기술 심포지엄 참가자 등록		
14:00~14:20	개회식		
14:20~15:20	• 개회사	고석구	회장
15:25~17:10	• 격려사	최영철	건교부 수자원국장
17:10~18:00	• 축사	선우중호	명지대학교 총장
18:00~19:30	제1부 : 주제발표		
	• 댐 사업 국내외 동향 • Current Status and Trends in Dam Projects in the United States	이희승 Walz, A.H.	한국대담회 부회장 전 미국대담회장
	제2부 : 주제발표		
	• Current Activities on Dams in Japan • New Trends in Hydrological Safety of Dams • 바람직한 댐사업 방향	Sayama, M. Berga, L. 백영훈	일본대담회 전무이사 국제대담회 부회장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
	종합토론	윤용남	부회장
	석식	고석구	회장

였는 바, 기술교류회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었다. 한국대표단의 참가 개요는 표 2와 같다.

제3차 한일 대담회 기술교류회는 2003년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대전에서 국제 댐 심포지엄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또한 2004년 서울개최가 확정된 '제72차 ICOLD 연차회의'에 대한 check-up meeting의 성격으로 ICOLD 총재 Mr. Viotti(브라질)와 사무총장 Mr. Gereget(프랑스), 중국 대담회의 Dr. Jia Jinsheng(중국, 훗

날 ICOLD 총재가 됨), 미국의 Mr. Walz 등이 초청되었다.

제3차 한일 대담회 기술교류회의 주요 협의 사항은 다음과 같았고, 행사의 개요는 표 3과 같다.

- 향후에는 한·중·일 3개국 대담회 정기 기술교류회로 확대하여 추진하되 협약체결 및 세부사항 논의는 2004년 ICOLD 연차회의 기간 중에 진행
- 대규모 참가단 파견 및 학술교류를 통해 2004년 ICOLD 연차회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표2. '제2차 일·한 대담회 기술교류회' 참가 개요

1. 참가 목적

- 한·일 대담회간 지속적 교류협력관계 증진  
- 양기관간 교류협력 방안 협의(공동 심포지엄 개최 등)  
- 환경친화적 댐건설·관리에 관한 정보교류 등
- 수자원개발·관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 파악  
- 일본의 환경친화적 댐건설·관리방안 등 기술 동향 파악  
- 일본의 댐건설 현황 파악

2. 행사 개요

- 일시 : 2002. 8. 25(일)~8. 28(수)
  - ▶ 8. 26 (오전 : 일·한 대담회 기술교류회의 / 오후 : 국제심포지엄)
  - ▶ 8. 27 : 현장 견학 (Roku-Zeki 지역 물관리 / Takizawa댐 건설현장)
- 장소 : 일본 동경 미나토구 Toranomon Pastoral
- 주요 참가자
  - ▶ ICOLD 회장 : Mr. C.V.J. Varma ▶ 미국 대담회 : Mr. Arthur H. Waltz
  - ▶ 세계은행관계자 : Mr. Alessandro Palmieri ▶ 한·중·일 대담회 대표
- 한국대담회 대표단 구성
  - ▶ 회장 : 고석구 ▶ 부회장 : 이순탁, 이희승, 이규환 ▶ 이사 및 수공 : 김우구, 임희대, 박한규
- 일·한대담회 기술교류회에서의 발표주제
  - ▶ 댐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법안제정 : 김우구
  - ▶ 댐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식과 분위기 : 박창운
  - ▶ 한국의 댐 안정성 : 임희대
- 국제세미나 발표주제
  - ▶ 한국에서의 저수지의 역할과 관리 : 이순탁

표3. '제3차 한·일 대담회 기술교류회' 및 '댐안전 국제 심포지엄' 행사 개요

1. 주요 일정

행사명	일시	장소
• 영접 및 기념촬영	11.10 09:00~09:10	현관 (3층)
• 연구원-일본토목연구소 이행각서(IA) 체결	11.10 09:10~09:55	임원회의실(4층)
• 서울회의 준비현황 보고		
• 한일대담회	11.10 10:00~11:50	대회의실 (5층)
• 환영 오찬	11.10 12:00~13:30	간부 식당
• 댐안전 국제심포지엄	11.10 14:00~17:50	대강당 (6층)
• 환영 만찬	11.10 18:00~19:30	직원 식당
• ICOLD 2004 서울회의 Check-point meeting	11.11~11.12	충주댐, 쉐라톤워커히, 한국민속촌
• 환송 만찬	11.12 18:00~20:00	쉐라톤워커히

2. 댐안전 국제심포지엄

- 주요 참석자
  - \* ICOLD : Mr. Viotti(총재), Mr. Bergeret(사무국장)
  - \* 중국 : Mr. Gao Jizhang (중국 水利水電科學研究院長, IWHR) Mr. Jia JinSheng (ICOLD부총재, IWHR 부원장)
  - \* 미국 : Mr. Walz (前 미국 대담회장)
  - \* 일본 : Dr. Toyoda(JCOLD 부회장), Dr. Sakamoto(토목연구소 이사장), Mr. Sayama(JCOLD 전무이사), Dr. Yamaguchi(토목연구소 연구원)
  - \* 국내 : 歷代 수자원국장, 토목학회장, 수자원학회장, 한국대담회 임원 및 회원, ICOLD2004 서울회의의 조직위원, 시공·용역사 임직원, 공사 직원 등 總 350名

3. 2003 韓·日 대담회 기술교류회의

- 주요 참석자
  - \* KNCOLD : 회장, 윤용남 교수, 이희승 부회장, 이길성 교수, 이규환 댐본부장, 김우구 연구원장
  - \* JCOLD : Toyoda 부회장, Sakamoto 이사장, Sayama 전무이사, Yamaguchi 박사, Nagasawa
- 주요 일정
  - \* 10:00~10:10 개회사 및 임원소개 고석구 KNCOLD회장
  - \* 10:10~10:20 일본측 답사 및 임원소개 Toyoda JCOLD 부회장
  - \* 10:20~10:50 한국측 주제발표 김우구 KNCOLD 전임이사
    - ICOLD 2004 서울회의 준비현황
    - 한국의 댐안전관리법 제정 추진 및 국가댐안전프로그램구축 현황
  - \* 10:50~11:20 일본측 주제발표 Sayama JCOLD 전무이사
    - 2004 Asia-Pacific Grouping Meeting 계획
    - 일본의 댐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 \* 11:20~11:50 토론 및 폐회
    - 韓·中·日 3국 대담회 기술교류회의의 추진

다. EADC의 출범

2004년 5월 21일 12:30 서울의 쉐라톤워커히호텔에서 한국대담회, 일본대담회, 중국대담회간 기술협약이 체결되었다. (사진 3)

'제72차 ICOLD 연차회의' (2004. 5.16~22, 서울 쉐라톤워커히 호텔)가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2003년 '제3차 한·일 대담회 기술교류회의'에서 논의 된 바에 따라 기술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3개국 대담회 회장과 부회장, 전임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서명이 이루어졌고, 정기 기술교류회의 명칭은 '동아시아 댐기술교류회(East Asian Area Dam Conference, EADC)'로 결정하였다. 협약서에 명시된 주요 내용과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주요 내용
  - 댐 관련 주요현안 및 대책 공유
  - 공동관심사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 ICOLD 연차회의시 3개국 대담회 기술교류회의 개최
  - 향후 아시아지역 대담회 기술교류회의로 확대
- 추진 방안
  - 매년 교차방문을 통한 기술협력 및 교류 회의 실시
    - 제1차 회의는 2004년 10월경 중국 의창(삼협댐)에서 개최
    - 제2차 회의는 2005년 일본에서 개최
- 기대효과
  - 한일대담회간 기술교류에 중국 참여, 3개국 확대 및 장차 KNCOLD가 주도하여 아시아지역 대담회간 기술교류 협력체로 발전



사진 3. 한·중·일 대담회 협약체결후 기념촬영  
 [앞줄 좌로부터 Toyoda(JCOLD 차기회장), 고석구(KNCOLD회장), Gao(CHINCOLD회장), 뒤줄 좌로부터 Jia Jinsheng(ICOLD 부총재, 중국수리수전과학원 부원장), Matsumoto(Japan Dam Engineering Center 부이사장), Irie(Japan Dam Engineering Center 이사장), Sayama(JCOLD 사무국장), Yoshikosi(JCOLD 당시회장), 이규환(KNCOLD 부회장), 김우구(KNCOLD 전임이사), 최병만(ICOLD2004 조직위원회 사무국장)]

3. EADC 개최 현황

2004년 제1회 EADC가 중국 서안에서 개최된 이후 중국·일본·한국의 순서로 2009년까지 2라운드가 진행되었으나, 매년 개최되는 것이 주제 발굴 및 참가자 모집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공통된 의견에 의해 그 이후에는 2년에 한번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2011년 제7회가 중국 정주에서 개최되었으며, 2013년 제8회 EADC는 일본이 2012년 ICOLD 총회를 개최함에 따라 연속해서 행사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을 호소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개최된 EADC 현황을 행사 개요 중심으로 정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EADC는 통상 2일간의 심포지엄과 문화행사

표4. EADC 개최 현황

개최지	기간	주제	기술견학지	참가자수	발표논문수
<b>제1회</b>					
중국 서안	2004.10. 7~10.13	Sedimentation	의창(삼협댐) Sanmenxia 댐 수리시험소	한: 28 중: 일:	한: 1 중: 일:
<b>제2회</b>					
일본 동경	2005.10.24~10.29	Sediment Management and Dams	츠꾸바, 니꼬, 오키나와	한: 29 중: 42 일: 129	한: 9 중: 9 일: 18
<b>제3회</b>					
한국 대전	2006.10.15~10.21	Sustainable Dam Technology for the future	서울, 경주, 제주	한: 155 중: 53 일: 48	한: 8 중: 8 일: 5
<b>제4회</b>					
중국 청두	2007.10.12~10.19	Modern Technology of Dams	샹자바 수력발전소, 도강언	한: 27 중: 일:	한: 7 중: 3 일: 5
<b>제5회</b>					
일본 요코하마	2008.10.19~10.25	Co-existence of Environment and Dams	니꼬, 오키나와	한: 28 중: 29 일: 198	한: 5 중: 5 일: 4
<b>제6회</b>					
서울	2009.10.25~10.31	Climate Change, Future Challenge of Dams	평화의 댐, 한탄강댐, 시화조력발전소등	한: 191 중: 25 일: 47 기타: 5	한: 9 중: 3 일: 6 기타: 1
<b>제7회</b>					
중국 정주	2011. 9.27~10. 4	현대 기술과 댐의 장기 거동	샤오랑디댐, 삼협댐 등	한: 25 중: 340 일: 22	한: 7 중: 24 일: 8

(cultural program), 기술견학(study tour)으로 구성되며, 심포지엄 2일차의 오후에는 city tour 또는 휴식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포지엄 개최식은 각국 대표단장의 인사말에 이어 기조 강연을 듣고, 각국 사무국장이 그간의 각국 대담회 및 댐 사업 실적을 내용으로 국가별 발표를 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견학은 2~3개의 코스를 참가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코스에는 댐 현

장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 환영만찬과 폐회를 겸한 환송만찬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 참가비에는 개최국내의 모든 숙박과 교통비용을 포함하고 있어 참가자는 항공료만 별도로 지불하면 되도록 개최국의 현실에 맞추어 책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7차례의 EADC가 개최되어 오면서 초기에는 퇴사관리와 같은 기술적인 주제가 주로 다루어졌으나 횡수를 거듭해 가면서 기후변화나 생태환경과 같은 세계적인 이슈와 댐 신기술 등

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그 동안의 가장 큰 변화를 꼽자면 제4회 EADC에 개최국 중국이 스웨덴대담회(SWEDCOLD)를 초청하여 참여함으로써 참가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3개 회원국 이외의 국가들이 옵저버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2012년 6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80차 ICOLD연차회의' 시 Asia-Pacific Chapter에서는 태국 등 신흥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EADC가 좀 더 개방되어 다른 국가들도 공식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년 각국이 돌아가며 개최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5차 EADC가 개최된 2008년 10월 21일 Pacifico Yokohama에서는 각국의 대담회장들이 수정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제7회 EADC부터는 격년주기로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

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3회와 6회 두 번의 EADC를 개최하였으며, 각 회의 행사결과보고서를 통해 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3회 EADC

1) 개요

- 기간: 2006년 10월 15일(일) ~ 21일(토)
- 장소: 대전 리베라호텔, 서울, 경주, 제주
- 행사구성: 심포지엄, Study tour 1?2?3, Cultural Program (표 5)

2) 참가 인원: 256명

- 국내: 155명 (정회원 및 원로회원 등)
- 일본: 48명 (Takashi Toyoda 대담회장, Yoshino Ryuji 사무총장 외)
- 중국: 53명 (Lu Youmei 대담회장, Jia Jinsheng 사무총장 외)

표5. 제3회 EADC일정표

일자	주요행사		비고
	오전	오후	
10/15 (일)	입국 / Official Dinner I		서울
10/16 (월)	Study Tour 3 (청계천 및 시화호) Official Dinner II		대전 이동
10/17 (화)	등록 및 심포지엄 / Welcome Reception		대전 리베라호텔
10/18 (수)	심포지엄	수자원공사물관리센터 및 수돗물분석연구센터 방문 / Cultural Event	대전 리베라호텔
10/19 (목)	Study Tour (1: 경주, 2: 제주도)		
10/20 (금)	Study Tour (1: 경주, 2: 제주도)		
10/21 (토)	서울이동	서울 City Tour/Farewell Banquet	서울 리츠칼튼 호텔

\* 한국: 삼부토건, 유신코퍼레이션, 현대, 도화, 현대산업개발, GS건설, 삼안, 수자원공사, 한국종합엔지니어링, 삼성물산, 계룡건설, 동부건설, 대우건설, SK건설, 남광토건, 한진중공업, 대림산업(주), KISTEC, 동부엔지니어링

3) 심포지엄

- 제출논문: 38편 (한국 12편, 일본 9편, 중국 17편)
- 구두발표: 21편 (한국 8편, 일본 5편, 중국 8편)

4) 기술견학 (Study Tour)

- Study Tour 1: 예천양수발전소, 임하댐, 경주 시티투어 (45명)
- Study Tour 2: 어승생댐(지표수), 지하수인공함양연구시설, 광역상수도 취수원 (지하수), 강정수원지(복류수), 심부시추현장, 제주시티투어 (61명)
- Study Tour 3: 청계천, 시화조력발전소 (104명)

5) 소요경비

- 수입 : 216,092,085원
- 국내: 91,030,000원
- 국외: 120,044,355원
- 관광공사지원금: 5,000,000원
- 발생이자: 17,730원
- 지출 : 224,000,144원
- 차액 : -7,908,059원

6) 기타

- 2006 제3회 EADC 행사는 국내 18개 단체회원사 및 일반회원 등 전체등록회원의 65% 참가
- 2005년 제2회 일본 개최시보다 2배의 외국인 참가

- 대전광역시 협조(대전시장주최 만찬, 참가자 기념품제공)가 컸으며, 향후 상호협력의 유대관계 효과 기대
- 중국 및 일본 참가자의 행사 기획 및 진행에 대한 극찬(일본 및 중국대담회로부터 감사편지 접수)

나. 제6회 EADC

1) 개요

- 기간: 2009년 10월 25일(일)~10월 31일(토)
- 장소: 서울 팔래스호텔 및 댐 견학지
- 주요행사내용 (표 6)

2) 참가인원 : 6개국 268명

- 한국: 191명 (김건호 회장, 정회원 및 원로회원 등)
- 일본: 47명 (Sakamoto 부회장 등)
- 중국: 25명 (Zhang Guoxin IWHR부사무총장)
- 기타: 터기 2명, 인도네시아 2명, 호주 1명

3) 심포지엄

- 제출논문: 40편 (한국 20편, 일본 8편, 중국 9편, 기타: 3편)
- 구두발표: 19편 (한국 9편, 일본 6편, 중국 3편, 기타 1편)

4) 기술견학 (Study Tour)

- Study Tour A(주제: 국가안보 및 공유하천): 평화의댐, 군남홍수조절지, 한탄강댐, 태풍전망대, 임진각 등(32명 참가)
- Study Tour B(주제: 녹색에너지): 시화조력발전소, 영광원자력발전소, 부안댐, 새만금전시관, 갈대습지공원 등 (33명 참가)

5) 소요경비

- 수입: 245,039,622원
- 국내: 130,705,085원
- 국외: 106,534,537원 (일본 47명, 중국 25명, 터기2명, 인도네시아2명)
- 지원금: 7,800,000원 (서울관광마케팅 460만, 관광공사 320만원)
- 지출 : 256,786,950원
- 차액 : △11,747,328원 (대담회 기금에서 충당)

6) 기타

- 아시아 빈곤국 초청 시도
- 한국대담회 국제협력위원회 제안 사항 반영
- 아시아 빈곤국 초청 (5개국) :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팔, 타지키스탄
- ☞ 인도네시아 대담회 부회장 등 2인 참가
- 언론보도
- 행사개최 신문보도 : 아시아투데이, 파이낸셜뉴스, 대전일보, 아시아경제
- 한.중.일 3개국 중심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지

역 국가의 참여 확대

- 행사 준비, 기획 및 진행에 대한 극찬
- 학술프로그램, 사교행사 진행 원활, 기술견학 참가자들의 만족도 높음
- 준비조직위원회 구성 및 위원들의 역할분담, 참여 활발

4. 문제점과 향후 추진 방향

지난 2004년 이후 일곱 차례 EADC가 각국을 돌아다니며 개최되었다. 필자가 몇차례 EADC에 참가하고 국내 대회를 준비하고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EADC가 당면해 있는 몇 가지 문제점과 EADC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발표논문의 질적인 문제

매 회 EADC의 주제는 주로 차기 개최국이 그 나라의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다른 회원국

표6. 제3회 EADC일정표

일자	주요행사	
	오 전	오 후
10/25 (일)	국외참가자 입국	VIP 만찬 (각국대표)
10/26 (월)	“국제심포지엄” (개회식, 기조강연)	국제심포지엄 구두발표 환영만찬(Welcome reception)
10/27 (화)	구두발표 및 폐회식	시티투어 (창덕궁)
10/28 (수) 10/29 (목)	“기술견학 A” (Shared River & National Security)	
10/30 (금)	“기술견학 B” (Green Energy)	
10/30 (금)	환송만찬 (Farewell Banquet)	
10/31 (토)	국외참가자 출국	

들이 협의를 통해 동의하면 결정되는 형태였다. 참가국들은 그 현안에 대해 각국의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문제와 해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EADC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 있다. 그러나 심포지엄에서 발표되거나 모여진 논문들이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깊이가 부족한 경우를 많이 보았다. 각국 대담회는 이런 면에서 좀 더 심도 있고, 주제에 적합한 논문을 모을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매회 참가자를 모집하기에 버거운 상황에서 많은 논문을 모으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라 제대로 검증된 논문을 모으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EADC가 유지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발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KNCOLD의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댐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다른 단체에서도 유사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곤 한다. EADC를 개최하면서 이런 다른 event와 joint를 하는 것도 실용적이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 나. 참가비의 고액화

각국의 물가수준과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참가자 1인당 참가비는 거의 2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일주일간 진행되는 국제 행사인 점을 감안하면 그리 비싸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개인별 항공료와 기타 경비를 포함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좀 더 많은 참가자를 모으기 위해서는 참가비를 가능한

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좀 더 검소하게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의 기술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가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숙박이나 기술견학의 수준을 다양하게 하여 참가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 다. 회원국의 확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히 Asia-Pacific그룹의 국가들이 EADC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이 큰 상황이다. 특히 2004년 EADC를 처음 출범할 당시의 협약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아시아 전체국가의 댐기술교류회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ICOLD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역 모임으로 Asia-Pacific Chapter가 있는 상황이고, 매년 ICOLD연차회의 기간 중에 불과 몇 시간에 불과하지만 별도의 모임을 하고는 있다.

따라서 ICOLD내의 Asia-Pacific Chapter모임을 EADC의 형태로 발전시킬 경우 그냥 외형만의 성장이 되어 내실 있는 기술교류회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ICOLD와 성격과 규모가 유사한 또 하나의 대규모 국제 행사가 되고 말 것이다. 회원국의 확대는 어느 정도 내실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하고, 서두르기 보다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